율그룹 건축사무소, 재활병원 건립 설계 재능기부

전북 권역 재활병원 및 공공 어린이 재활 의료센터를 준비 중인 예수병원은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와 전주시 장애인복지과와 연계해 ㈜율그룹 건축사무소로부터 기본설계 재능기부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예수병원은 지난 2019년 권역별 공공 어린이 재활센터 건립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 결과 전주 예수병원이 선정돼 국비 36억 원, 지방비 36억 원 등 총 7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공 어린이 재활센터를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2021년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사업에도 예수병원이 최종 선정되면서 전라북도 재활 치료에 총괄적인 재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율그룹 건축사무소의 이번 재능기부는 각자의 전문성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기부형태라는 점에서 한 단계 진화한 기부 모델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김윤상 기자

어린이들에 소원 선물 후원

전주시설공단, 최신 블루투스 이어폰 등 평소 갖고 싶어 하는 선물 전달

결손가정 어린이들이 전주시설공단의 도움으로 평소 갖고 싶던 것들을 선물로 받게 됐다.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은 19일 '키다리 아저씨의 소원 들어주기 프로젝트'를 통해 결손가정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했다.

전주시 드림스타트 지원 대상인 아이들 10명이 받게 될 선물은 최신 블루투스 이어폰과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비롯해 자전거, 백팩, 3D펜, 원피스, 청바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으로 이뤄져 있다. 공단은 화장지, 라면 등 생필품 위주의 기존 나눔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물 구매에 앞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받고 싶은 선물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전주시 드림스타트,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했다. 특히 공단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으로 행사를 마련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병우 전략기획부장은 "키다리 아저씨 소원 들어주기 프로젝트는 시민에게 받은 사랑을 부모의 맘으로 돌려준다는 의미로 진행하는 행사"라며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 주기 위해 앞으로도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진안군, 보안업무 등 직무교육 실시

진안군은 보안업무 등에 대한 직원 직무 능력 함양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지난 17~18일 이틀간 행정 업무 능력을 향상 시키고, 높아지는 정보공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공무원 3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교육 대상은 3개 분야로 보안업무, 기록물관리, 정보공개 등이다.

보안업무 분야는 각종 보안사고 예방과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처리 절차와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기록물관리 분야는 공공기록의 가치와 중요성, 관리 단계별 기록물 관리 절차와 유형별 기록물 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교육했다.

정보공개 분야는 제도의 의의와 처리 절차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인후3동 지사협, 취약계층 위한 반찬 나눔

전주시 덕진구 인후3동(동장 조문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정진해)는 지난 18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 더한 반찬나눔' 사업을 진행했다.

이날 협의체 회원들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무더위로 인해 입맛을 잃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40가구에 열무김치, 돼지고기 메추리알 장조림, 계란말이, 멸치볶음 등 반찬 4종을 정성껏 조리해 전달했다.

정진해 위원장은 "위원들이 손수 만든 반찬으로 이웃과 정을 나누고, 관심이 필요한 이웃의 안부를 살필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이환주 남원시장, 현장 밀착행정 펼쳐

남원시 기획실은 이환주 시장이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관내 주요 사업장 13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의 이번 현장방문은 주요 현안사업과 공약사업에 대한 효과적 대책 강구로 민선7기 역점사업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오리정 버선밭 연계관광지화 사업 ▲유곡리·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건립 ▲지리산 허브밸리 고도화 등 동부권 발전사업 대상지와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사업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사업 ▲섬진제 재해복구 사업현장 등이었다.

현장에서는 사업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민과 공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문제점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며,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해 부서간 업무 공유를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부권 발전사업도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인월면, 지리산 둘레길 3코스 LED조명 설치

남원시 인월면(면장 이은주)은 지리산 둘레길 제3코스(구 인월교~경애원)에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LED 경관조명 산책길을 조성했다.

3코스는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산책로로 이용되었으나, 야간조명이 없어 보행환경이 열악하다는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이에 인월면에서는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입해, 3코스 1.6km에 LED경관조명 78개, 로고석 3개를 설치했다. 하늘에서 빛나는 달빛과 경관조명에서 비추는 은은한 불빛이 산책로에 절묘하게 어우러져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사회복지협 좋은이웃들, 주거환경개선 연합봉사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진) 좋은이웃들은 지난 17~18일 2일간 성수면 다문화가정에서 주거환경개선 연합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대상자는 협의회에서 운영 중인 좋은이웃들사업에 신고된 다문화가정으로 집 안팎 곳곳을 치울 여력이 없어 결혼 후 지금까지 도배, 장판 교체를 하지 못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3대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봉사활동은 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주민도움센터, 사회공헌활동기부은행 봉사자, 진안군청 희망복지팀, 등 25여 명이 봉사자로 나서 구슬땀을 흘렸다. /진안=우태만 기자

임실군, 오수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매출 '효자'

지난해 6월 개장한 오수휴게소(완주순천고속도로-하행선) 로컬푸드 행복장터가 위드코로나와 봄나들이 관광객들로 농특산물 판매가 증가하여 임실군 농가소득 증대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오수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는 치즈체험시설과 로컬푸드를 판매하는 곳으로 치즈 모양의 독창적인 건축물 디자인과 편안한 실내인테리어로 소비자의 입소문을 타고 전국 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현재까지 매출액은 1억5천만원으로 올해는 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오수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는 지역 내 50 농가(업체)가 참여하여 가공·농특산물 및 유제품 등 200여 개 상품을 판매하기에 매출 증가에 따른 의미가 더 크게 다가서고 있다.

특히 가공 및 농특산물은 전체 매출액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옻닭육수, 장류, 호두양갱, 통밀가루, 복숭아즙, 감말랭이, 가시엉겅퀴즙은 인기 품목으로 자리 잡아 임실군 대표 농산물로 품질 우수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한경문 농촌활력과장은"앞으로도 우수하고 다양한 임실군 농특산물을 오수휴게소를 이용하는 전국 소비자에게 다양한 먹거리로 판매하여 지역 농가의 소득증대와 임실군의 이미지를 대한민국에 널리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삼천동 정중식씨 "참회하는 마음으로 봉사" 전해

"경제적으로 남을 도울 수 없지만 건강하지 않은 몸이지만 남을 위해 봉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젊은시절 단 한번의 실수로 집과 가정을 버린채 오랜 생활 용서를 빌고 후회의 나날을 보낸 정중식 씨(70)의 눈물어린 사연이다.

이른 아침이면 하루도 빠짐없이 삼천동 주택가 골목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노인을 만날 수 있다.

누구의 부탁도 아니고 오로지 정 씨의 의지로 긴 세월동안 골목골목을 돌며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면 한가롭게도 보이지만 청소하는 노인의 심정은 언제나 참작하기만 한다.

정 씨는 30여 년 전 잘못을 지금도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당시 정 씨는 5년간 교도소에서 죄값을 치르고 출소했다.

정 씨는 "남을 위해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아마 죽을때까지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진홍영 기자

농어촌공 순창지사, '내고향 물살리기 환경정화'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지사장 임현석)는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됨에 따라 전북 순창군 인계면 인계저수지 및 복흥면 동산저수지 일원에서 '내 고향 물살리기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내고향 물살리기 활동'은 지역민과 소통을 통해 수질 환경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농업용수의 수질을 보전하는 일석이조의 행사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주최해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직원들을 비롯해 적십자회 순창지회 회원 등 20여 명이 합심하여 참가하였다. /순창=이양원 기자

평화2동, 끌림청풍기에 착한가게 10호 현판 전달

전주시 평화2동 주민센터(동장 이영애)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권명덕)는 19일 끌림청풍가(대표 천미숙)를 방문해 착한가게 10호점 현판식을 가졌다.

착한가게란 매월 3만 원 이상 일정액을 기부해 정기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를 말하며, 모아진 후원금은 평화2동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인다.

천미숙 대표는 "요즘같이 힘든 때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착한가게에 가입하게 됐다"며 "기부금이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중히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인후1동 지사협, 홀로어르신 가구에 반찬 지원

전주시 인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주옥분)는 19일 먹거리가 취약한 홀로 어르신들의 밑반찬 지원을 위한 '사랑의 반찬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직접 밑반찬을 조리하고 배달하면서 저소득 어르신들의 건강도 살폈다.

주옥분 위원장은 "식생활의 기본이 되는 밑반찬 지원을 통해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 생활을 유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군산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 국방부장관 부대 표창

군산대학교는 19일 대학본부 총장접견실에서 군산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에 대한 국방부장관 부대 표창 전달식을 진행했다.

국방부장관 부대 표창은 군산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가 예비군 자원관리 및 지역단위 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한 것으로, 군산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 창설 이후 2019년에 이은 두 번째 수상이다.

군산대학교는 총장이 직접 학생예비군들의 안보의식 고취와 능동적인 훈련 참여를 위해 매년 훈련 때마다 훈련장을 방문하여 학생예비군들을 격려해왔는데, 최근 2년 동안에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으로 실제 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군산=김판곤 기자